

민요 《아리랑》에 대한 분석

리 동 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아리랑〉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입니다. 민요 〈아리랑〉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조선사람치고 민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서는 다 알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4권 372페이지)

오늘 민요 《아리랑》은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 조선민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무엇보다먼저 민요 《아리랑》에 대한 지난 시기의 견해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아리랑》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해석을 하여왔다.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1990년)에서는 《아리랑》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서정민요로서 《아리랑》후렴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계보를 가진 가요군을 형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부근에 있는 알영정의 알영과 그옆에 있는 아리랑고개와 결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려가요의 후렴구인 《알리 알리 알란성 알라리 알라》가 《아리랑》과 어음적으로 류사하므로 그와 결부시키기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조선전사》 제14권(1980년)에서는 《아리랑》은 1865년 경복궁중축공사이후 명성황후의 세도정치를 증오하고 그들의 악정을 폭로하여 나왔다고 하면서 《리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명성황후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가사를 통하여 명성황후 일파의 세도정치를 야유조소하고있다고 서술하였다.

《조선구전문학연구》(1)(1990년)에서는 《아리랑》은 8도마다 전설적인 내용을 안고 창조전승되었다고 하면서 밀양지방에서 나온 《아리랑》은 옛날령남루에서 아랑이라는 처녀가 관청사령이 겁탈하려고 덤벼들자 물속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나왔으며 이 노래가 나온 때부터 사람들은 밀양의령남루를 《아랑각》이라고 불렀다고 서술하였다.

《조선대백과사전》 제26권(2001년)에서는 《아리랑》을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라고 하면서 민요 《아리랑》의 가사와 함께 《아리랑》의 발생과 관련한 많은 전설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성부와 리랑전설》이라고 소개하였다.

《문학신문》 2003년 11월 23일부에서는 《조선민요해설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아리랑전설》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성부와 리랑전설》을 정리하여 실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 경기도 어느 지방의 김좌수라고 하는 지주집에서 리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가 머슴살이를 하고있었다. 어느해 큰 흉년이 들었는데 욕심사나운 지주놈은 농민들에게서 소작료를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리자에 리자까지 덧붙여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원성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 마침내는 김좌수와 악질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군중속에는 리랑과 성부도 있었다. 이에 당황한 관가에서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다. 농민폭동군과 관군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나온 리랑과 성부는 산으로 들어가 초막을 짓

고 새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랑은 눈만 감으면 농민들과 동료들이 관군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어려워서 진정할수 없었다. 생각끝에 리랑은 성부에게 자기 심정을 말하였다. 그의 결심이 확고한것을 안 성부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부는 석달열흘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리랑과 리별하게 되었다. 리랑을 떠나보낸 성부는 리랑이 그리워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어느날 산밑에 사는 백상도라는 지주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왔다가 홀로 사는 성부를 보게 되었다. 이날부터 이자는 매일과 같이 찾아와 자기와 같이 살자고 치근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다.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랑과 감격적으로 상봉을 한 성부는 집에서 저녁상을 차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백상도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찾아왔다.

성부의 얼굴은 질리다못해 새까맣게 되고 리랑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이 타번졌다.

리랑은 백상도가 성부와 정분을 나눈것으로 오해하고 즉시 칼을 뽑아 그자를 죽인 다음 성부에게 침을 뱉고 단숨에 고개를 넘어갔다. 성부는 복받쳐오르는 설음을 참아가며 《아-리랑!》하고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다. 결집에 떠난 리랑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성부가 절대로 그럴 녀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발길을 돌려 언덕길로 내려오던 리랑은 가슴에 칼을 박고 길옆에 쓰러져 숨진 성부를 발견하고 그를 끌어안고 몸부림쳤다. 리랑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그후 어느 길손이 부르기 시작하였는지 그 고개를 《아리랑고개》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성부가 리랑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를 《아리랑》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오고있다. ...

이 전설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속에서 구전으로 창조전승되어온것으로서 성부와 리랑을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전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형상하지 못한 일련의 제한성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남성들은 일단 안해를 맞아들이면 그를 자신처럼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면서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고상한 성품을 지니고있는것을 미덕으로, 남성들이 지녀야 할 귀중한 품성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 나오는 리랑은 우리 나라 남성들이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의 안해를 믿지 못하여 침을 뱉고 돌아섰다가 뒤늦게 뉘우치는 웅졸한 성격의 소유자로 형상되었다.

그런가 하면 성부 역시 일단 남편을 맞아들이면 한생을 자기의 절개를 지켜 굳세게 살아가는 외유내강한 우리 나라 녀성들의 전형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그리지 못하였다. 작품에서 그는 백상도앞에서 철저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녀성으로 형상되었다.

물론 구전으로 전해져내려오는 전설인것으로 하여 그것이 사람들속에 옮겨지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질수 있고 인물들의 형상도 각이하게 될수도 있었을것이다.

지금까지 민요 《아리랑》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전설과 결부한 해석(《성부와 리랑전설》, 《아랑각전설》 등), 어음적인것과 결부한 해석(고려가요 《알리 알리 알란성 알라리 알라》), 지명과 결부한 해석(석굴암 부근에 있다는 《아리랑고개》), 후렴구와 결부한 해석(리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명성황후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등으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민요 《아리랑》을 어원적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아리》라는 어휘의 고유한 의미는 《길다》는 뜻으로 이해할수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제26권에서는 《아리수》라는 어휘에 대하여 《고조선이래로 큰강을 이르던 우리 나라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에서 《아리》는 《크다》 또는 《길다》는 의미이다.

1823년에 편찬된 우리 나라 민족고전 《해동역사속》(지리고)에서는 《압록강》을 《아리나례》라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고유한 우리 말인 《아리나리》를 리두식으로 표기한것이다. 여기에서 《아리》는 역시 《길다》 또는 《크다》는 의미이고 《나례》는 《나리》를 리두로 쓴것인데 《나리》는 고유한 우리 말로 《강》을 말한다. 그것은 고구려가요 《동동》의 2절에서 《정월의 나리물은…녹으려 하는데》의 구절에서 《나리》가 《시내》 또는 《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바로 《압록강》은 옛적에 고유한 우리 말로 《아리나리》로 불렸고 후에 한자로 표기하면서 《鴨綠江》이라고 쓰고 읽기는 《아리나리》로 읽다가 사람들속에서 한자음 그대로 《압록강》으로 불리워진것이다. 따라서 《압록강》이라는 말은 《아리나리》 즉 《긴강》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통하여 고유한 우리 말인 《아리》는 역시 《크다》 또는 《길다》는 뜻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로부터 《아리랑》에서 《아리》라는 말은 《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것이다.

《아리랑》에서 《랑》이라는 의미는 원래 《아리령》으로 불리우던것이 《ㄱ》이 《ㄴ》로 어음변화를 일으키면서 《랑》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다. 즉 언덕을 나타내는 《령(嶺)》이 어음이 변화되어 《랑》으로 되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이라는 말은 원래 《아리령》으로서 《긴언덕》 또는 《긴고개》라는 뜻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여러 지방의 지명들에 《아리랑고개》가 있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된 석굴암부근에 있었다고 하는 《아리랑고개》나 여러 지방들에서 자기 고장의 동구밖에 있는 나즈막하거나 밋밋한 언덕을 《아리랑고개》라고 부르는것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아리랑》이라는 말은 후에 하나의 대상으로 불리워지면서 여기에 《고개》라는 어휘가 덧붙어서 《아리랑고개》로 불리워진것이다.

《아리랑》을 《긴고개》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민요 《아리랑》에 깃든 리랑과 성부에 대한 전설과도 결부하여 설명할수 있으며 《아리랑》민요군을 이루고있는데 대하여서도 해설할수 있다.

민요 《아리랑》을 대표하는 전설인 《성부와 리랑》에서도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농민봉기군으로 떠나가는 리랑이 사랑하는 안해를 뒤에 두고 떠나자니 차마 발걸음을 뻗수가 없어 집앞에 있는 나즈막한 고개를 넘으면서 가다가는 되돌아보고 다시 달려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안해를 설복하고 또다시 돌아서서 고개를 넘다나니 그야말로 《긴고개》를 넘어가듯이 힘들게 넘어갔던것이다.

한마디로 길을 떠나는 남편을 바래우러 나온 안해인 성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험한 곳으로 혼자 보내는것이 걱정되어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매여달리자 남편은 집에 남아서 가정을 잘 돌보라고 타이르면서 동구밖에 있는 언덕을 힘겹게 넘어간것이다.

남편의 간절한 권유에 못이겨 집에 남은 안해는 남편이 여러번 발걸음을 멈추면서 힘들게 넘어간 고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불렀던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노래에서 서정적주인공인 너인이 부르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구절의 의미는 실지로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데 대한 야속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로운 길로 떠나간 남편을 더없이 사랑하고 남편의 신상을 걱정하는 애모뿐 심정을 굴절시켜 표현한것이다. 이때 가사에서 표현된 《아리랑》은 《긴고개》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의 조흥구로도 되었다.

이처럼 떠나간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님과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부른 《아리랑》의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절절하고 열정적인 선율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이로부터 이 노래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새로운 《아리랑》민요군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울분과 함께 기어이 조국을 찾으려는 애국의 감정을 반영하여 《아리랑》은 더욱 널리 불리우게 되었다. 노래 《아리랑》이 불리워지는 과정에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함경도의 《단천아리랑》 등 지방적인 변종을 가진 민요 《아리랑》이 수많은 생겨나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었다.

가사들에는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는 아쉬움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지향과 념원이 절절하게 반영되어있다.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은 《조선대백과사전》 제26권에 실려있는 《아리랑》가사의 마감부분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설달에도 꽃만 핀다

노래에서는 백두산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이 땅우에 기어이 동지설달에도 꽃이 피는 락원을 일떠세우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가려는 우리 인민의 희망과 념원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오늘 민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민요들에 대한 해설을 보다 폭넓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